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대전교육청, 산홍오케스트라 등 문화예술·미래역량 신장

대전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0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 학교별 특성을 반영해 문화예술 감수성 신장과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한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문화예술·미래역량 중심 방과후학교는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해 단위학교형 방과후학교 28교, 거

점형 방과후학교 4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중 산홍초는 초·중·고등학교로 학교의 특색 교육활동인 '산홍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 산홍오케스트라는 문화예술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과 감성을 성장시키는 발판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거점형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중 희망

학생이 참여해 초·중·고등학교에서 경험한 문화예술 역량이 단절되지 않고 청소년기로 연결돼 학생들의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고 각종 음악제에 참여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호주 한국 연합 윈드 오케스트라단을 초대해 동구청소년자연수련원에서 합동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산홍오케스트라의

'Pixar Movie Magic' 공연을 시작으로 호주한국 연합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이어지고 산홍오케스트라와 호주 한국 연합 윈드 오케스트라의 'It Had Better Be Tonight' 합동공연으로 마무리됐다. 윤기원 교육정책과장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학생이 문화예술활동 전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영 기자 young0425@daillycc.net



오석진 행복교육이음공동체 대표가 전반기 워크숍에서 법인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행복교육이음공동체 제공)

'행복교육이음공동체' 법인 인가

대전 첫 교육법인... 창립총회 6개월여 만에 공식 승인

대전지역 교육 관련 각종 현안에 대응, 교육 당사자로의 연결로 해결하는 목적을 두고 출범한 '행복교육이음공동체'가 법인으로 공식 승인돼 민간 차원에서 교육 관련 현안을 사전 조율,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123명의 회원을 둔 '행복교육이음공동체' (HELP/Happy Edu Link Partnership 대표 오석진)는 1월 31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190일 만인 지난 9일 법인으로 공식 승인받았다. 이같은 초속한 승인은 이례적인 것으로, 대전세무서로부터 '법인 고유번호증'과 함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제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를 함께 전달 받았다.

과 한국 학생들 간의 교류를 위한 협약 체결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행복교육이음공동체의 국제 교육 교류 기회 제공은 큰 의미가 있고, 상호 국가 간에도 우호적으로 발전하는 관계를 만드는 초석으로 매우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인으로 새 출발하는 '행복교육이음공동체(HELP)'는 순수 교육 봉사단체로 교육 당사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적인 관계자를 직간접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과 이를 통해 교육 당사자들의 미래에 대한 대비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행복교육이음공동체'가 법인으로 공식 승인됨으로써 국내에서 각종 교육 현안과 관련된 의사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시기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 해결하는 등 공식활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7월 사무소 개소식을 가진 '행복교육이음공동체'는 이번 법인 공식 인가를 시작으로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관련 이슈 등을 개발,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봉사를 펼칠 장·단기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오석진 대표는 최근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을 예방하고 브리핑

과 한국 학생들 간의 교류를 위한 협약 체결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행복교육이음공동체의 국제 교육 교류 기회 제공은 큰 의미가 있고, 상호 국가 간에도 우호적으로 발전하는 관계를 만드는 초석으로 매우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인으로 새 출발하는 '행복교육이음공동체(HELP)'는 순수 교육 봉사단체로 교육 당사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적인 관계자를 직간접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과 이를 통해 교육 당사자들의 미래에 대한 대비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초·중·고, 대학, 행정, 연구 연구, 홍보, 지역사회 분과와 국제교육교류협력단으로 구성된 '행복교육이음공동체'는 교원 업무경감 지원사업, 진로진학 상담 및 지원사업, 기관과 단체 대상 교육 관련 지원사업, 교육계 현안 해결 및 발전을 위한 활동, 예비교사 지원사업 등 5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복교육이음공동체(HELP)'는 홈페이지(https://www.edu-link.kr/), 전화상담실(042-632-6326), 밴드, 페이스북 등을 운영, 교육 수요자들의 각종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황천규 기자 lin3801@daillycc.net



배재대, 한국어연수과정 수료식

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이 '한국어연수과정 수료식'을 열었다. 10일 배재대에 따르면 대내외 콘서트홀에서 '한국어연수과정 수료식'을 열고 41개국 외국인 어학연수생 366명에게 수료증을 교부했다. 이날 수료식은 성적 우수·개교 포상 82명에게 상장과 함께 수여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귀감이 됐다. 또 외국인 어학연수생들이 한 학기동안 갈고닦은 한국어 능력이나 K-POP 댄스 페스티벌, 악기 연주, 국가별 전통의상 패션쇼도 선보였다. 아울러 한국어교육원은 한국어교육뿐 아니라 외국인 어학연수생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 민간사설 활동도 병행하고 있으며 6개월~1년간 한국생활을 한 연수생들이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

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이 '한국어연수과정 수료식'을 열었다. 10일 배재대에 따르면 대내외 콘서트홀에서 '한국어연수과정 수료식'을 열고 41개국 외국인 어학연수생 366명에게 수료증을 교부했다. 이날 수료식은 성적 우수·개교 포상 82명에게 상장과 함께 수여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귀감이 됐다. 또 외국인 어학연수생들이 한 학기동안 갈고닦은 한국어 능력이나 K-POP 댄스 페스티벌, 악기 연주, 국가별 전통의상 패션쇼도 선보였다. 아울러 한국어교육원은 한국어교육뿐 아니라 외국인 어학연수생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 민간사설 활동도 병행하고 있으며 6개월~1년간 한국생활을 한 연수생들이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 (사진=배재대 제공)

충남대-서울대병원, 발달장애인 언어치료 연구 힘 모은다

전문가 양성 교육 협력

충남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가 10일 서울대병원 발달장애언어저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발달장애인의 언어치료와 관련해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의뢰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진행됐다.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팀 접

근 증재와 '보완체제의사소통'을 활용한 전문가 양성 교육에 나선다. 충남대 언어병리학과 학생들은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팀 접근 현황을 직접 관찰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이 이뤄지는 실재를 경험할 예정이다. 신 교수가 이끄는 의사소통과보조공학연구실은 중증의 의사소통장애인에 대해 필요한 AAC 평가와 중재 접근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국립대학육성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상징사용 능력을 다각도로 측정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 AAC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으며 작년에는 '장애인과 세상을 잇는 AAC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지역 장애인에게 100건의 무료 평가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의영 기자 young0425@daillycc.net

신성대, 노르딕워킹 교육

신성대학교는 지난 9일 지역사회 웰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노르딕 워킹 교육을 교내에서 진행했다. 폴(pole)을 이용한 노르딕워킹은 일반적인 걷기보다 상체의 움직임이 강화한 전신 유산소 운동으로 관절 및 척추 관련 재활운동 및 우울감을 완화시켜주는 힐링 보행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노르딕 워킹의 장점으로는 폴이 균형을 잡아주면서 체중을 분산시켜, 발을 디딜 때마다 전해지는 충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관절이 약한 사람들도 부담없이 할 수 있으며 특히 뇌졸중, 관절염 환자 등의 재활에도 적극 이용되고 있다.

또한 상체를 곧게 펴고 배에도 힘이 들어가기에 코어를 강화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교육의 강사로 나서 김경태 대한노르딕워킹연맹 대표는 "수강생의 열정과 집중력은 태도로 2시간이 짧게 느껴졌다"며 "노르딕워킹이 널리 전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종식 기자 leejs6604@daillycc.net

충남도립대, 인성&힐링 캠프

충남도립대학교 작업치료학과가 재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을 높이기 위한 캠프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작업치료학과는 최근 청양 칠갑산 NH호텔에서 마음도닥 인성&힐링 캠프를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캠프는 대학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 마인드를 함양하는 게 목적이다. 이만재 학과장을 비롯한 양노열 교수, 재학생 등 20여명은 캠프를 통해 소통&화합을 위한 액티비티를 즐겼다. 이어 '마음 특강: 자기돌아보기', '긍정마인드 셋 명상 특강'을 통해 재학생들의 긍정적 마인드를 이끔었다. 이번 캠프의 핵심인 학교생활 적응 &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명상을 배우고 익혔다. 이의영 기자 eulle222@daillycc.net

대전교육연수원 '교육시설 안전관리 2기' 연수

전문성 제고·현장 문제해결 능력 강화

대전교육연수원이 17일부터 18일까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대전시교육감 소속 6급 이하 교육행정직, 시설관리직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교육시설 안전관리(2기)' 연수를 실시한다. 이는 안전한 교육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의 교육시설 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생들은 전기설비 안전관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시설 유지 보수 실무, 교육시설물 화재 및 자연 재난 관리 등의 과목을 통해 교육시설 관리 분야별 전문지식을 배우고 실무경험을 쌓는다. 또 클래식테라피 과목을 통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상호 원장은 "이번 교육이 전문적인 시설관리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의영 기자 young0425@daillycc.net

충남교육청, 수능 원서 접수 업무담당자 연수

충남교육청은 10일 홍성군 소재 진로융합교육원에서 도내 고등학교 교감, 원서 접수 담당교사,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업무담당자 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방법 안내 △대체수험능력시험 업무처리 지침 안내 △대체수험능력시험 관련 전달 △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교육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한다. 이의영 기자 eulle222@daillycc.net

대전교육청, 학교급별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연수

대전시교육청이 9일부터 10일까지 '2023학년도 학교급별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서현주 중앙다문화교육센터장 등을 강사로 초빙해 다문화교육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함으

로써 현장 교원의 다문화교육 실행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정책, 지역사회 연계 다문화교육 정책, 교육연극을 통한 다문화사회와 의사소통으로 구성된 공통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정책을 이해하고 다문화학생과의 소통 역량을 강화한

다. 또 다문화교육 수업 설계, 다문화 학생 학습, 학교생활, 진로·진학 지도 등 학교급별 분반 과정으로 맞춤형 교육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했다. 특히 다문화교육센터와 다문화교육정책학교 운영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의 다양한 사례 중심의 연수를 제공해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을 적용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의영 기자 young0425@daillycc.net

학습지원시스템 '이클래스 한발' 설명회

한발대, 사용자 UI 개선 교수자·학습자 활용성 극대화

한발대학교 교수학습센터가 신규 학습지원시스템(LMS)인 '이클래스 한발' 설명회를 개최했다. 10일 한발대에 따르면 LMS는 교수와 학습자 간 교육과 소통은 물론,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자료 등을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는 차세대 LMS '이클래스 한발'에 대한 주요 기능과 활용 방법을 교수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클래스는 사용자 UI 개선을 통해 교수자·학습자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 운영 체계를 갖췄다. 이어 마이페이지를 통한 교수·학습

활동 현황 관리,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원, 푸시 알림, 캘린더를 통한 교수-학습 일정 관리,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학습, 온라인 시험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구글 과제와 Matlab Grader의 연동을 통해 이클래스에서 구글 클래스룸과 Matlab 과제를 등록·제출·채점할 수 있고, ZOOM과도 연동해 이클래스에서 곧바로 ZOOM 화상 강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AI 자동 자막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신규 도입한 이클래스 한발을 2학기 개강일인 내달 1일부터 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의영 기자 young0425@daillycc.net

세종 '어울림'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진출

세종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지원센터 확대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중증장애인예술단 어울림이 2023년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0대 우수사례로 선정돼 본선에 진출했다. 어울림 예술단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공연을 통해 학교 학생들이 공연에 직접 참여하고 예술단원들과 소통함으로써 기존 강의식으로 진행되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하며, 학교 현장에서 예술단 공연이 큰 호응

을 얻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어울림 예술단의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10대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21일까지 국민참여 플랫폼 ON국민소통(onsotong.go.kr)에서 국민참여 온라인 순위결정전을 하며, 3개 사례에 투표할 수 있다. 정완영 기자 waneyoung@daillycc.net